



희뿌연 광주 하늘 광주 전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13일 오후 광주시청 옥상 헬기장에서 바라본 서구 광천동 한 고층 아파트 상공이 미세먼지로 뿌옇다. /뉴스

광주·전남 “미래 먹거리 산업 지원” 요청

국가균형위 지역공약 토론회...정부 지원 촉구
 광주, AI영재고 설립·군공항 이전 등 7개 사업
 전남, 에너지·우주산업·무안공항 등 15개 과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광주·전남도와 함께 1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지역 지역공약 토론회를 갖고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정현 국가균형위 전략기획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광주·전남도·균형위 관계자들과 지역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정훈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지역공약 추진현황 보고에서 “지난 4월 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광주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중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6개 사업, 453억 원에 그

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광주·전남 AI(인공지능)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국토부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AI중심도시 광주를 위한 2단계 사업 기획 등 1단계와 2단계 사업 병행 추진, AI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AI 영재고 설립 등 광주의 미래를 위한 핵심사업을 건의했다.

또 시민 숙원사업인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통과와 대통령 임기 내 국가 주도 이전,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면

제와 조기 착공, 광주 복합소풍물 교통·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지원과 중소상공인과의 상생 및 지역발전을 위한 국비 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지역공약은 중앙 차원의 이행점검 체계가 없어 전반적으로 중앙부처가 소극적인 상황이다. 중앙부처의 관심과 지역공약 이행을 제고를 위한 균형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광주시 주요 공약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전남지역 공약은 지난 2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전남을 방문해 직접 발표했으며,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광주·전남지역 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에서 공약과 이를 뒷받침할 정책과제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전남의 주요 공약은 친환경 재생

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고층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광역 고속교통망 확충, 광양항을 글로벌 스마트항만으로 조성, 무안국제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육성, 첨단의료복합단지·푸드바이오밸리 조성, 서남해안 해양생태관광·휴양벨트 구축 등 7대 분야 15개 정책과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솔라시도 재생에너지산단 및 발전단지 건립, 전국 유일 광역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정비(MRO)·물류·풍납야 노선 특화 등 지원, 지능화된 미래항만 조성,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구축, 친환경 케이(K)-푸드 수출 플랫폼,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등도 건의했다.

문영주 전남도 행정부시장은 “토론회가 국가균형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일상 기자

본격 추위 온다...이틀간 최고 5cm 눈

일부 지역 한파특보...광주·전남 예상적설 1~5cm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 13일 밤부터 한파특보가 발령된다. 이틀간 최고 5cm의 눈도 내릴 것으로 예보돼 교통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광주기상청은 이날 오후 9시를 기해 전남 구례·장성·영광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이날 밤부터 오는 14일 오전까지 남해안을 뺀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겠다. 예상 적설량은 1~5cm다.

지역에 따라 5mm 미만 비가 내리

는 곳도 있겠다.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전남 곡성 영하 7도, 장성·담양·화순 영하 6도, 구례·보성 영하 5도, 순천·나주·영암·영광 영하 4도, 광주·함평 영하 3도 등으로 예보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추위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낮은 기온 속에서 밤사이 눈이 쌓이면서 도로 곳곳에 얼음이 낄 수 있다. 출근길 교통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일상 기자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퇴진” 요구 확산

민주 광주시당·전남도당·국회의원·광역의원 잇따라

광주·전남 지역에서 김광동 신임 진실화해위원장과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의 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확산되고 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위원회의 수장에 5·18을 왜곡하는 인사를 내정한 데 따른 반발로, 5월 단체는 물론 지역 정가에도 반발 여론이 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13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김광동 위원장은 편협한 역사관과 진실 왜곡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인물”이라며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화해’와 ‘화합’을 원한다면 논란과 분란을 유발하는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과 이용민 의원(광산갑) 등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도 잇따라 성명이나 입장문을 내고 김 위원장 임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들도 공동 성명을 통해 “김 위원장 임명 강행은 국민 통합과 역사의 진실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임명 철회와 사과 왜곡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모자회)와 5·18기념재단은 전남 공동성명서를 내고 “이번 인사는 윤 대통령이 5·18 기념식 당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일정신은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며 강조한 5·18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5·18정신을 통한 국민 통합의 가능성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이자 역사의 진실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김도기 기자

민중당 소속 광주시의원들도 공동 성명을 통해 “김 위원장 임명 강행은 국민 통합과 역사의 진실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가뭇물·절수 운동 호소	2면
‘文 케어’ 사실상 폐기	3면
주택 유무 자산 격차 10배	4면

알림

본보 지역 주재기자 모집

▶모집분야: 여수·고흥군

호남매일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는 도내 중소기업의 권리보호를 위한 저작권 서비스부터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사업화 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작권 등록

저작권 등록 비용 지원

저작권 상담

저작권 전반에 대한 실무상담 지원

저작권 육성지원

시제품 제작, 홍보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

SW관리체계컨설팅

SW사용 실태진단 및 개선방향 컨설팅 지원

산업현장컨설팅

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 서비스 지원

QR코드로 신청 바로가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전라남도

joia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문의 : 061-280-7493 / pjy@jcia.or.kr